

## 오행체질론에 의한 안전직무 설계

- Job Design for Safety Based on Five Elements Constitution -

이 동 형 \*  
Lee Dong Hyung  
김 재 두 \*  
Kim Jae Du

### Abstract

In the Oriental Medicine, the physical constitution of a human being can be classified into five characteristic elements. The remedy based on the five elements constitution has revealed excellent clinical effects so far. Therefore, it may be worthwhile to conduct job design researches considering the five elements constitution for improving the efficiency and safety of job. In this study, we examine whether the theory can be applied for job design through the experiment by 'Digital-type Speed Anticipation Reaction Tester' or not and suggest the desirable direction of job design.

**Key-word** :Oriental Medicine, five elements constitution,  
job design, safety of job

### 1. 서론

이제마(李濟馬)에 의해 창안된 사상의학은 태양인(太陽人), 소양인(少陽人), 태음인(太陰人), 소음인(少陰人)의 4가지 체질을 설정하고 각 체질에 대한 생리, 병리, 진단, 변증, 치료와 약물에 이르기까지 서로 연계를 갖고서 임상에 응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5] 그러나 실제로 각 체질마다의 기질을 측정하거나 정량화하는 것이 어려워 과학적으로 객관성을 나타내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

한편 오행체질론에서는 사람의 장부를 금, 수, 목, 화, 토 등의 오행체질로 구분하여 그의 허와 실에 따라 적절한 처방을 한다. 또한 오행생식요법에서는 오행체질을 분류, 알맞은 음식을 섭취, 병을 치료하고 예방하고 있다. 예컨대 폐의 기능이 나약한 사람이 폐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매운 맛이 나는 음식이나 향기를 섭취하거나 남을 다스리는 일을 많이 하게 한다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한다[6].

그동안 동양체질론 즉 사상체질론과 오행체질론에 따른 직무설계 연구[1]에서는 사상체질론에 따라 피험자를 분류하여 측정된 것만이 체질간에 유의차가 있다고 나타낸 바 있다.

\*한밭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그러나 그 연구를 보면 오행체질분류가 가장 기본적인 분류원칙인 얼굴형태에 따라 분류되지 않고 오행체질분류 설문지[4]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 설문 내용 또한 애매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체질이 제대로 분류되었는지 의문이 간다.

왜냐하면 이미 임상에서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오행체질론에 의한 실험결과도 유용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미 임상에서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오행체질론에 의한 실험결과가 과연 유용한 지 알아보기 위해서 피험자를 오행체질로 분류, 유사한 실험을 실시,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 2. 오행체질론

동양의학에서는 인체의 각 부분을 하나의 통일된 전체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인체와 자연환경과의 사이에도 상응의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쉽게 관찰하고 설명하기 위해 다섯 묶음으로 나누었는데 이것이 바로 오행이다. 오행의 특징과 체질별 기본적인 성격은 <표1> <표2>와 같다.[4]

<표 1> 오행체질별 기본적인 성격

오행	기본적인 성격
木型 (□)	얼굴이 긴 木형의 사람은 착하고 부드럽고 추진력이 있으며, 이런 사람은 계획을 잘 세운다. 이렇게 얼굴이 긴 사람은 항상 무엇인가 남에게 주려는 경향이 있으며, 마음이 弱해 남의 요구를 박절하게 거절을 잘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 미래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기획부서 등에서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시험공고가 났을 때에 날짜별로 공부 계획을 잘 세우는 학생들을 보면 얼굴이 긴 목형의 학생들이다.
火型 (▽)	심장이 좋아 이마가 넓고 턱이 뾰족한 하관을 가진 사람은 불(火)이 상징하듯이 화려하고 환상적이며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힘이 우수하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순간적인 모험심이 강하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욕감이 발달하여 눈치가 빠르고 외향적이므로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꿰뚫어 보는 경우가 많으며 그래서 그러한지 禮가 바른 사람이 많다.
土型 (○)	얼굴이 동그란 토형의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생각이 깊고 남을 잘 의식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먹고사는 데 투철한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 많다. 비위가 좋은 사람이라 불리는데 미각이 뛰어 난 것이 보통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장래의 일이나 앞으로 뻗어나가는 기획부서의 일을 맡긴다면 이런 사람들은 지적능력에 관계없이 아주 피로워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대개 현실에 대한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제트기류에 요동치는 비행기 안에서도 태연한 사람들이 많다.
金型 (□)	얼굴이 네모난 金형의 사람은 네모난 사각형이나 쇠의 결정에서 알 수 있듯이 움직이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하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규칙적이고 신의가 있으며 모든 것을 일정한 규범을 세워놓고 그 규범 안에서 행동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항상 긴장해 있는 경우가 많고 남도 확실히 만들어라기 때문에 명령적인 기질이 많다. 결정한 것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한없이 자존심 상해하며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라기 때문에 솔선수범 하는 사람이 많다.
水型 (△)	얼굴이 삼각형으로 생겨 신장방광이 좋은 사람은 물의 속성에서 엿볼 수 있듯이 살랑살랑하고 한없이 연한 사람이다. 물은 유체의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전단력이 가해지는 한 그에 응하므로 참고 인내를 잘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역의 물을 나타내는 坎卦(감괘, ≡)에서 볼 수 있듯이 외부가 陰으로 싸여 있어 수동적이고 양보하는 경향이 많은 사람이다. 한편, 水(물)는 금의 긴장된 상태에서 빠져 나온 성질을 지니고 있으므로 면전에서서는 반발을 잘하지 않으나 저항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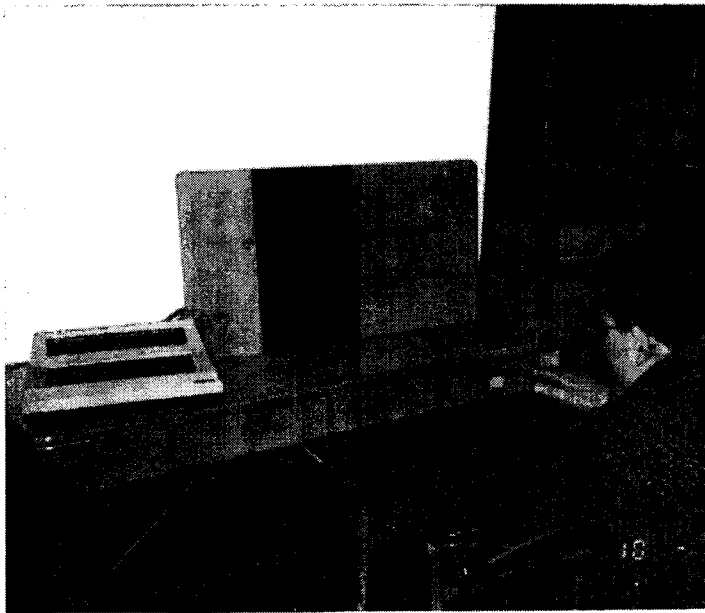
<표 2> 五行屬性表

五行	木	火	土	金	水
속성	緩	散	固	緊	軟
설명	따뜻하고 부드러운 에너지	폭발하듯 확산하는 열기	안으로 단단하게 뭉치는 힘	긴장 또는 결정을 이루는 힘	차고 연하며 아래로 흐르는 기운
얼굴형태					
성격	작하고 부드럽고 진취적이다	예술적 정열적이고 폭발적이지만 뒤끝이 없다.	남의 눈치를 안보고 비위가 좋고 확실하다.	규칙적이고 권위와 의리가 있다.	사근사근하고 참을성이 많고 비밀이 많다.
지배장부	간, 담	심장, 소장	비장, 위장	폐, 대장	신장, 방광
지배부위	눈,목,고관절 발,편도선,근육 손톱,발톱	주관절,얼굴상완,허,피,혈관,주걱뼈	비계,배,무릎,대퇴부,입,입술	피부,코,체모 하완, 가슴, 항문, 손목관절	뼈,골수,힘줄,귀,허리,이빨,머리털,음부,발목
년	春	夏	長夏	秋	冬
일	새벽	오전	정오	오후	저녁
맛	酸(신맛)	苦(쓴맛)	甘(단맛)	辛(매운맛)	鹹(짠맛)
색깔	청	적	황	백	흑
5곡	팥	수수	기장	현미,울무	서목태(콩)
5축	개	염소	소	말	돼지
太週년도	2002	2008	2004	2010	2006

### 3. 실험장치 및 측정방법

#### 3.1 실험장치

측정기구는 Digital-type Speed Anticipation Reaction Tester로 자극칸막이, 조정부, 턱받이, 반응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극칸막이는 반응램프, 가림판, 칸막이 그리고 이동램프로 되어있다. 이동램프의 속도는 F(빠름)과 S(느림)으로 속도변환 스위치를 이용하여 조절할 수 있고, F의 정규시간은 1040 msec이고 S의 정규시간은 2080 msec이다. 본 실험에서는 S를 사용하였고 사이클 변환은 60Hz로 하였다.



<그림1> Digital-type Speed Anticipation Reaction Tester

#### 3.2 실험방법

##### 1) 피험자

먼저 피험자인 한밭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학생 151명을 대상으로 얼굴형태에 따라 오행체질로 분류하였다. 일부 체질판별이 어려운 학생들은 기 개발된 오행체질분류 설문문을 수정 보완[부록 참조]한 설문결과를 참고하여 체질을 최종 판별하였다. 그리고 오행체질론에서는 기본적으로 목, 화, 토, 금, 수, 상화, 표준의 7가지 체질로 나눌 수 있으나 상화나 표준형은 거의 찾을 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목, 화, 토, 금, 수 5가지 체질로만 분류하였다.

2) 실험절차

실험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 ① 검사실은 약간 어둡게하여 램프가 잘 보이게 한다.
- ② 검사기에서 1.2m 떨어진 곳에 턱받이를 고정시키고 전원을 연결한다.
- ③ 검사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검사한다.
- ④ 개별검사이므로 해당 수검자 이외에는 별실에 대기한다.
- ⑤ Digital-type Speed Anticipation Reaction Tester의 이동램프의 속도와 같은 속도로 가림판을 통과하여 반응램프까지 도달하였을 때를 감지한 시간을 측정치로 한다.
- ⑥ F속도로 2회 연습한 후 S속도로 본 검사를 5회 실시한다.
- ⑦ 변동이 많은 수검자는 5회 이상 측정하되 10회는 넘지 않아야 한다.
- ⑧ 측정치 기록시간은 10 msec단위로 기록한다.

4. 분석방법 및 실험결과

4.1 분석방법

분석의 정확성을 위해 우선 <표3>의 평균추정반응시간과 측정치의 평균을 비교하여 합격과 불합격 수검자를 판별한다. 그리고 측정치로부터 평균동요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범위(R)를 계산하고 <표4>의 동요도판정기준표의 기준치( $R'$ )와 비교하여 적당과 부적당 수검자를 판별한다. 판별방법은 다음과 같다.

기준치( $R'$ ) ≤ 측정치의 범위(R) 이면 부적당

기준치( $R'$ ) ≥ 측정치의 범위(R) 이면 적당

<표3> 평균추정반응시간에 의한 판정표

구 분	시 간	판 정
정상반응	1501~3000 msec	합 격
조금 빠른 반응	1001~1500 msec	준합격
조금 늦은 반응	3001~3500 msec	
매우 빠른 반응	1000 msec 이하	불합격
매우 늦은 반응	3051 msec 이상	

&lt;표4&gt; 동요도 판정기준표

기준 측정회수	1500이하	1500~ 1600	1601~ 1800	1801~ 2000	2001~ 2300	2301~ 2600	2601~ 3000	3001 이상
n=5	동요도에 관하여 판 정은 하지 않는다.	560	603	700	800	910	1050	동요도에 관하여 판 정은 하지 않는다.
n=6		610	680	760	870	990	1140	
n=7		650	730	810	930	1050	1220	
n=8		680	770	850	980	1110	1280	
n=9		710	800	890	1020	1160	1340	
n=10		740	830	920	1060	1200	1390	

평균추정반응시간에 의한 판정과 동요도 판정에서 합격한 수검자중 오행체질별로 각각 10명을 선정하고 통계분석 패키지인 SPSS를 이용하여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실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검정하기 위해 우선 수검자의 추정반응속도의 평균에 대한 분산의 동질성 검정을 실시한 후, 오행체질별 평균추정반응시간의 차의 검정을 분석한다.

## 4.2 실험결과

분석대상은 실험에 참여한 151명의 수검자중 평균추정반응시간에 의한 판정과 동요도 판정에서 합격한 수검자 총82명으로 오행체질별 인원 현황은 <표5>와 같다.

&lt;표5&gt; 오행체질별 합격 수검자 인원 현황

항 목 체질구분	인원	점유율
목	24	29.2
화	20	24.4
토	13	15.9
금	14	17.1
수	11	13.4
총인원	82	100.0

<표5>에서 오행체질별 평균추정반응시간에 의한 판정과 동요도 판정에서 합격한 수검자 현황을 보면 총 합격수검자 82명 중 목형의 체질인 수검자가 24명으로 전체 29.2%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화형 24.4%, 금형 17.1%, 토형 15.9%순으로 나타났으며, 수형체질이 13.4%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 4.2.1 오행체질내의 동질성 검정

오행체질로 구분된 각 수검자간 측정치에 차이가 있다면, 체질분류에 의미가 없으므로, 우선 목형 24명, 화형 20명, 토형 13명, 금형 14명 그리고 수형 11명 중 각 체질별 10명의 수검자를 선출하여 개인별 5번의 추정반응시간 측정치를 서로 비교하여 분산의 동질성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산의 동질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각 체질별 수검자를 인자의 수준으로 보고, SPSS를 이용하여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표6>과 같이 나타났다. 여기서 귀무가설은 “각 체질내의 산포는 같다”로 설정하고, 대립가설은 “각 체질내의 산포에는 차이가 있다” 즉, “수검자간 측정치에 차이가 있다”라고 설정하였다.

<표6> 오행체질별 개인간 측정치의 분산분석 결과

체질구분	F비	p값	F기각치 F(9,40;0.05)
목	2.06217	0.05696	2.124029
화	1.36208	0.23753	
토	1.00765	0.45013	
금	1.68499	0.12486	
수	2.09463	0.05319	

<표6>에서 각 체질의 F비와 F기각치를 비교해보면, 각 체질의 개인간의 반응시간은 유의수준  $\alpha=0.05$  에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즉 체질내의 개인간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구분된 체질은 각각 동질의 집단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 4.2.2 오행체질간의 유의성 검정

체질내의 동질성 검정 결과 개인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구분된 체질이 동질의 집단으로 간주되므로, 체질간의 비교를 위해 각 개인의 5회 측정된 반응시간의 평균을 유의수준  $\alpha=0.05$ 에서 분산분석을 실행하였다. 각 체질을 인자의 수준으로 한 분산분석은 <표7>, 체질간 다중비교분석은 <표8>, 평균과 분산은 <표9>와 같다.

<표7> 체질간 분산분석 표

변동의 요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비	p값	F기각치 ( $\alpha=0.05$ )
체질간	3887294	4	971823.52	312.39	0.00000	2.579
체질내	139992	45	3110.93			
합계	4027286	49				

<표7>를 보면 각 체질간의 F비와 F기각치를 비교하면 유의수준  $\alpha=0.05$ 에서 유의하게, 즉 각 체질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8> 체질간 다중비교

체질(I)	체질(J)	평균차(I-J)	유의확률
목형	화형	-142.40*	0.008
	토형	-59.20	0.592
	금형	-148.20*	0.006
	수형	-770.80*	0.000
화형	목형	142.40*	0.008
	토형	83.20*	0.005
	금형	-5.80	1.000
	수형	-628.40*	0.000
토형	목형	59.20	0.592
	화형	-83.20*	0.005
	금형	-89.00*	0.002
	수형	-711.60*	0.000
금형	목형	148.20*	0.006
	화형	5.80	1.000
	토형	89.00*	0.002
	수형	-622.60*	0.000
수형	목형	770.80*	0.000
	화형	628.40*	0.000
	토형	711.60*	0.000
	금형	622.60*	0.000

\*: 0.05 수준에서 평균차가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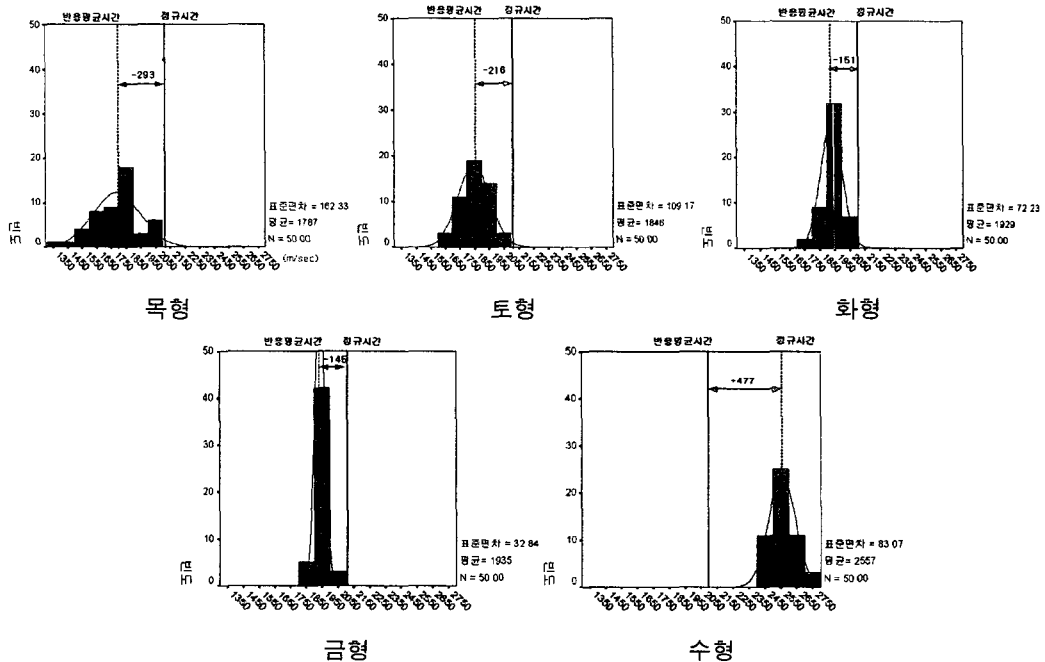
<표8>은 이러한 차이가 어떠한 체질들 간에 기인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사후분석으로 유의수준  $\alpha=0.05$ 에서 반응시간의 평균을 종속변수로하여 다중비교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7>에서 체질간의 분산분석결과 각 체질간의 반응시간의 평균에 차이가 존재함으로 등분산을 가정할 수 없어 Dunnett의 T3(3)을 이용하여 각 체질별 다중비교를 하였다. 분석결과 목형과 화형, 목형과 금형, 목형과 수형, 화형과 토형, 화형과 수형, 토형과 금형, 토형과 수형 그리고 금형과 수형 사이에는 유의적 차이가 있으나, 화형과 금형 그리고 목형과 토형 사이에는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9> 각 체질별 평균과 분산

인자의수준	N	평균	분산
목형	10	1787	9093.38
화형	10	1929	1332.67
토형	10	1846	2398.62
금형	10	1935	322.84
수형	10	2557	2407.16



각 체질별 반응정도를 보면 <표9>에서와 같이 목형의 반응시간 평균이 1787msec로 가장 성급하게 반응하였고, 토형이 1846msec, 화형이 1929msec, 그리고 금형이 1935msec 순으로 반응하였으며, 수형이 2557msec로 가장 느리게 반응하였다. 그러면 각 체질별 반응시간의 분포형태를 표시하고 평균시간과 정규시간 2080msec을 비교하여보면 <그림2>와 같다.



<그림2> 체질별 반응시간의 분포형태 및 정규시간과의 관계

<그림2>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목형의 경우 정규시간(2080msec)보다 283msec 더 빠르게 반응을 하였고 토형은 216msec, 화형은 151msec 그리고 금형은 145msec 더 빠르게 반응하였다. 반면 수형은 정규시간보다 477msec 만큼 늦게 반응하였다. 체질 중 정규시간에 가장 가깝게 반응한 것은 금형으로 나타났다.

분포형태를 보면 목형은 표준편차가 162.33으로 심리적으로 동요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 토형이 109.17, 수형이 83.07 그리고 화형이 72.23 순으로 나타났으며, 금형이 표준편차가 32.84로 가장 침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 5. 결론 및 토의

본 논문에서 오행 체질을 얼굴의 형태에 따라 분류하여 'Digital-type Speed Anticipation Reaction Tester'를 이용 속도변화에 따른 예측반응시간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얼굴형태에 따라 분류한 오행 체질간의 차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과 <표2>의 오행체질별 성격과 속성에서와 같이 목형의 경우 “부드럽고, 진취적인 성격”을 소유하였지만 실험결과 조급함과 경솔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토형인 경우 “남의 눈치를 안보고 비위가 좋고 확실”하지만 다소 성질이 급하고 심정에 변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형의 경우 “규칙적이고 권위와 의리가 있다”라는 기질적 특성과 같이 가장 정확한 반응을 보였으며, 동요도 가장 적었다. 수형의 경우는 “참고 인내를 잘하고 수동적이고 양보하는 경향”의 기질적 특성과 같이 가장 늦은 반응을 보였으며 동요도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이와 같은 실험결과에 따르면 오행체질의 성격과 속성을 근거로 속도를 인지해야 하는 운전, 선반 등의 직무설계 시에는 서두르는 습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목형과 토형은 냉정하게 사태에 대처하지 못하고 항상 동작이 앞설 뿐만 아니라 동요도가 커 정서변화가 심하고 행동이 불안정한 한 충동적 경향이 있어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크므로 부적합하다. 반면에 지연반응을 보이는 수형의 경우에는 모든 동작이 느려 속도 감각을 요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있어 운전이나 선반 등의 직업군에 부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오행체질에 의한 반응시간 만으로는 실제 현장에서의 작업배치에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지속적으로 직업적성검사와 작업에 필요한 감성반응 데이터를 측정하여 적용한다면 안전직무 설계시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또한 체질의 분류를 세분화하고 분류기준을 다양화한다면 적용범위의 확대가 가능하고 직무설계시 훌륭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앞으로 체질의 세분화 방법과 명확한 분류기준의 정립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6. 참고문헌

- [1] 최성운, 이영석, 동양체질론의 감성적 기질을 이용한 안전 직무설계, 1999년 안전경영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pp. 31-39, 1999.
- [2] 장동순, 신미수, 최혜선, 동양사상과 체질의 골프응용, 2001년 감성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pp. 114-120, 2001. 5.
- [3] 장동순, 배연경, 최혜선, 음양오행속성의 물리적 해석에 의한 체질론, 1998년 감성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pp. 89-94, 1998.
- [4] 장동순, 신나일, 신미수, 음양오행체질론에 근거한 성격파악 및 감성응용, 1998년 감성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pp. 106-111, 1998.
- [5] 장동순, 동양사상과 서양과학의 접목과 응용, 도서출판 청홍, 1999.
- [6] 김춘식, 오행생식요법, 도서출판 유림, 1992.
- [7] TKK, Digital-type Speed Anticipation Reaction Tester Operation Manual, Item No. 1108, 1985

부록 : 오행체질분류 설문

( )학년 ( )반 성명( ) 직업( )

질문내용	Y	N
1. 다른 사람에게 이것저것 주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2. 여행이나 시험 등이 있을 때 꼼꼼히 계획을 잘 세우는 편이다.		
3. 다른 사람이 몇 번 반복해서 부탁하면 거절을 하지 못하는 편이다.		
4.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을 무시하고 비꼬아 말할 때가 있다.		
5. 자기집 조카나 남의 집 어린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것을 좋아한다.		
6. 대체적으로 희망적인 얘기를 잘 한다.		
7. 자신의 생각을 시나 문장 또는 그림으로 표현하기를 좋아한다.		
8. 남들로부터 자존심이 무척 강하다는 말을 듣는 편이다.		
9. 인자하고 다정하며 착하고 순한 성품이다.		
10. 대체로 신 맛 나는 음식을 싫어한다.		
11. 청룡열차나 바이킹을 탈 때 무섭다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는다.		
12.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편이다.		
13. 화려하고 환상적이며 힘있고 돌격적이고 용감한 성격이다.		
14. 미래를 예측, 어떤 질서를 말하곤 한다.		
15.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기꺼이 바칠 각오가 되어있다.		
16. 한 달 생활비를 하루동안 애인과의 즐거운 데이트를 위해 다 써버릴 수 있다.		
17. 인사를 잘하고 예의가 바르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18. 때때로 언론인들처럼 남의 잘못을 신랄하게 비판을 한다.		
19. 예술가적인 기질이 있으며 환상적인 연애를 한다.		
20. 대체로 쓴맛 나는 음식을 싫어한다.		
21. 이성친구를 사귄 때 그 사실을 친구들에게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		
22.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23. 매사에 정확하고 신용이 있어 사람을 모이게 하고 화합시킬 수 있다.		
24. 규칙을 정해 놓고 지키지 않을 때는 그냥 넘어가기가 어렵다.		
25. 너무 고지식하고 융통성도 없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질문 내용	Y	N
26. 자신의 남자(여자)친구를 믿지 못하고 의심을 한 적이 여러 번 있다.		
27. 주위에서 모르는 예금통장을 만들어 놓는다.		
28. 낯선 사람을 만나면 어색해 하고 평소 내성적이라는 말을 듣는다.		
29. 기다리는 일을 잘하며 심지어는 나를 화나게 하는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서도 잘 참고 견딘다.		
30. 대체로 단 맛 나는 음식을 싫어한다.		
31. 스스로 규칙을 정해놓고 잘 지키는 편이다.		
32. 리더십이 있어 항상 앞에 나서서 일을 추진하고 술선수범 하려고 한다.		
33. 다른 사람과 시비가 벌어졌을 때 큰소리를 잘 치는 경향이 있다.		
34. 스스로 하려던 일을 시키면 기분이 언짢아지는 경우가 많다.		
35. 인간관계에서 의리를 중요시하며 옛날 고향친구를 자주 그리워한다.		
36. 항상 높은 자리에 있어야만 하고 언제나 상전대접을 받고 싶다.		
37. 술에 강하고 또 술을 좋아하여 술자리를 마다하지 않는다.		
38. 경찰공무원이나 판검사가 적성에 맞는 것 같다.		
39. 다스리는 능력이 뛰어나고 승부욕이 강하다.		
40. 대체로 매운 음식을 싫어한다.		
41. 언제나 앞장서지 않고 표면에 부상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42. 과학적이고 수학적이어서 연구, 개발하여 건설적인 의견을 잘 제시한다.		
43. 성격이 차분하여 논쟁을 할 경우 논리적으로 적절히 대응, 항상 이기는 편이다.		
44. 친구가 자신보다 더 인정을 받거나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면 자신도 모르게 질투하는 마음이 생긴다.		
45. 운동이나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집에서 책을 보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한다.		
46. 잘 기다리고 잘 참으며 또 비밀을 잘 지킨다.		
47. 사람들을 잘 중재하여 싸움이나 흥정을 잘 해결하는 편이다.		
48. 길을 가다가 돌발적인 사건이나 황당한 일을 당해도 순간적으로 판단, 적절히 대처한다.		
49. 남과 얘기를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슬슬 약을 올리고 비비꼬아 말할 때가 있다.		
50. 대체로 짠 음식을 싫어한다.		

판정 :

## 저 자 소 개

이동형 : 동국대학교 공업경영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대학원 산업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국립 한밭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사)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및 감성과학회 감사, (사)한국생산성학회 상임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로는 설비관리, Fuzzy 이론 응용, 산업안전, 감성공학 등이다.

김재두 : 한밭대학교 산업공학과와 동산업대학원을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대학원 산업공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현재 한밭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조교로 재직하고 있으며, 주요 관심분야는 감성공학, 데이터마이닝, E-Business, 웹컨텐츠개발, 품질경영 등이다.